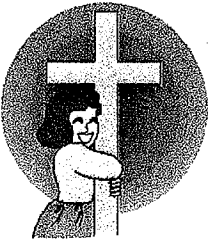


-조현상 목사-



지난 금요일 오후에 한 여집사님으로부터 꼭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고 목양실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두 딸을 데리고 어렵게 사시는 교우였습니다. 살아온 세월의 아픔을 눈물을 흘리며 녹여내시더니 상가 등기권리증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 상가는 남편이 세상 떠나기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것이어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 상가는 절대 손댈 수 없었습니다. 오늘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이 흔들리기 전에 목사님을 만나야 하겠기에 바쁜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바로 교회 앞으로 등기를 하라

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을 "서원"에 눌러 지냈음을 금새 알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산관리부장, 구제부장, 재정부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철야 후에 관련부서장들이 모였습니다. 대강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한지 얼마 후 어렵지 않게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하나님께 드린 수 천만원의 이 헌금은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바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여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심야기도 후에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여집사님을 당회실로 오시게 했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하나님께 드린 이 전 재산을 교회는 받기로 했습니다." 집사님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이 몇 천만원을 쌓아두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도 결정 했습니다. 이것을 집사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순간 집사님은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집사님, 교회는 분명 집사님의 전 재산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는 그 상가는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 상가는 어제의 상가가 아닙니다. 오늘 이후 이 상가는 하나님께서 서울광영교회를 통해 집사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가 이 상가를 집사님에게 드리면서 단서가 있습니다. 이 상가는 집사님 가정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는 집사님의 생활비가 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팔아서 아이들 결혼 시키는데도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다 되돌려 받은 상가가 아닙니다."

자산관리부장님께서 권리증과 전세계약서 등을 담은 교회 봉투를 그 여집사님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모인 이들 모두는 박수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집사님을 축복했습니다. 여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에 차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품에 안은채로 말입니다. 이 결정을 하고 돌아간 분들 모두가 행복한 밤을 맞았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성도들 모두도 행복해 했습니다.



◀추억생각하기▶ "김지미 거울"
방바닥에 세워놓고 얼굴을 보다 뒤로 돌리면 김지미 얼굴이 나오던 회전거울.
마주 보고 웃어 주던 당대 최고 배우의 미소는 공백한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모두에게 '문화의 귀족감'을 누리게 했던 행복한 거울이었습니다.
문화, 남정임의 말력도 벽 한쪽에서 경쟁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건강한기정건강한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5권 20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5월 18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이런 사람이 좋다



그리우면 그림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불가능 속에서도 한줄기 빛을 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좋고,
다른 사람을 위해 호탕하게 웃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좋고,
비싼 옷차림이 아니더라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좋고,
자기 부모형제를 끔찍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바쁜 가운데서도 여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좋다.

노래를 썩 잘하지 못해도 즐겁게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좋은 말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좋고,
책을 가까이하여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이 좋고,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잘 먹는 사람이 좋고,
철 따라 자연을 벗삼아 감탄 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손수 따듯한 커피 한 잔을 탈 줄 아는 사람이 좋고,
하루 일을 시작하기 앞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좋다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 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때에 맞는 적절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녹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외모보다는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좋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고,
새벽공기를 좋아해 일찍 눈을 뜨는 사람이 좋고,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좋고,
춤다고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다

엄마가 딸에게
자녀 스스로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돈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중요한 하면 짐승 같고
판단하면 보통사람이지만
용서할 때
참된 신앙인이 된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3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52(요일 4장)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91장	다 같이
기도 Prayer		김영길 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21:1-17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사랑의 방법'	김윤관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찬송 Hymn	410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을 더욱 굳세라' (1절:현석호 집사, 임병숙 권사 가정 2절:다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5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4	김교섭	박병민	최목기, 강순남	정관영, 정성호
11	김순자	박상욱	결식자봉사부	조용건, 최득수
18	김영길	박 실	현석호, 임병숙	최현철, 경덕현
25	김종건	박재양	선교부	권용일, 김경구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려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1. 교우소식

*한국방문. 도세경 성도. 모친 병환으로 지난 16일(금)출국.
부모님을 고국에 두고 온 우리, 밤에 걸려오는 전화에 놀라는
죄인 심정입니다
*등록하셔서 갈보리가족이 되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최원영, 이종란 성도. 정인 .정안 ☎520-1707

☎ 8/82 Bassett rd.remuera

2. 오늘은 '은혜와진리교회'와 교환경단주일로 지킵니다.

*설교: 김윤관 목사(은혜와진리교회).

3. 오늘은 식사친교주일입니다. 따끈한 국밥에 걸절이 하나 만으로도 인정이
질펀했던 그 시골장터의 향수를 오늘 오후에 느껴봅니다.

『산성 돌담장 길/ 따스한 봄 햇살 찾아 쫓르르

겨우내 여윈 다람쥐/미안하구나 나 혼자

점심 때 배부르도록/ 밥을 먹어서』 -나태주 "봄날"-

4. 9기 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3): *일시: 20일(화) 저녁 7:30. 교회

5. 남선교회월례회(예고): 다음주 Tea Time을 하면서 모입니다

6. 지난주 수요일예배는 예사로 생각했다가 무척 추웠습니다. 이번주부터는 Gas
Heater를 틀어야 겠습니다.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7:30 <성경강해> 출애굽기 30:11-16"생명의 속전"

7. 다음 설교를 위하여...

*그동안의 누가복음 설교를 마치며 교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의견을 안내석의함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김성국 목사 E Mail 변경. nzcalvary@hanmail.net

*교우 여러분의 E Mail 주소록을 작성 하려합니다. 저의 이메일로 E Mail 주
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때 재미있는 얘기 하나씩 동봉해 주
시면 많이 웃겠습니다

◀착한 시인▶ 윤 사 월

-박목월-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 길다

괘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 대이고

엷듣고 있다

리무엘 신부님께서 사택마당
에 수북히 잘라 쌓아 놓은 소
나무.

수십년 동안 자란 큰 소나무
베어 자신은 필요도 없으면서
가져다 Firewood로 사용할
분들을 위해 도끼로 잘게 다
듬기를 몇일.

별 연관된 의미없이 소나무
와 송화가루라는 이유만으로
떠 오른 시의 그림 만큼 아름
다운 신부님의 마음입니다